

“난 항상 그런 눈으로 봐왔어요, 당신의 사랑을 원해요”



시네필과 함께하는 영화산책 <1> 만추 리마스터링

극장가를 달군 뜨거운 인기작부터, 비교적 조명받지 못했지만 고유의 예술 가치를 담고 있는 예술영화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영화는 문화적 감수성을 재충전시켜 준다. '시네필과 함께하는 영화산책'에서는 영화관, OTT 플랫폼 등에서 상영하는 화제의 영화들을 소개한다.

현빈·탕웨이 주연...화질·음향 보정 지난해 말 재개봉 OTT 상영 중 수인번호 2537번에게 돈을 빌리는 남자 '훈'...그들의 '가을' 이야기

화질과 음향을 보정해 스크린에 올랐던 영화를 다시 선보이는 리마스터링 열풍이 뜨겁다. 지난해 개봉 이래 누적 관객 수 110만 명을 돌파한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가 리마스터링을 거쳐 재개봉했으며, 영화 '겨울왕국'도 10주년을 맞아 재작업을 거쳐 극장가를 다시 찾은 바 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것은 현빈, 탕웨이 주연의 '만추'. 영화는 지난해 말 재개봉해 한동안 극장가에 선보였으며, 현재 OTT에서 상영 중이다.

수인번호 2537번의 '애나' (탕웨이 분)는 살인 전과로 7년째 수감생활 중이다. 어머니의 부고로 3일간 특별 휴가가 주어지고 장례식에 가기 위해 시애틀행 버스를 탄다. 그녀는 고작 72시간 내로 교도소로 돌아와야만 한다. 갑작 코트를 입고 철문 밖 낙엽처럼 세상에 한 철 나뉜군 션,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함참 달리던 시애틀행 버스가 중간 정거장에서 손님들을 태웠다. 막 출발하려는 순간 애나 앞으로 처음 만난 남자 '훈' (현빈 분)이 달려와 대뜸 30분만 빌릴 수 있다고 묻고, 그녀는 전후 사정도 묻지 않고 돈을 빌려준다. 이 만남을 계기로 접어뒀던 '가을'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능글맞은 카사노바

훈은 담레로 시계를 손목에 채워 주는데, 고전 속 사랑의 징표처럼 주인공들을 연결하는 매개물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

집에 도착한 훈은 돈으로 여자들을 만나며 공허한 시간을 보내고, 본가에 방문한 애나도 반기는 이 없는 미묘한 시간을 보낸다. 애나는 기본전환을 위해 7년 만에 막혀버린 낫을 뚫고 한껏 몸지장한 채 길거리로 나선다. 그러나 행선지를 확인하는 교도소 전화가 울리자 현실은 '악몽'이 되고 만다. 잠깐 입었던 예쁜 옷을 화장실에 버리고 그녀는 교도소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일찍이 미셸 푸코는 완벽한 '유토피아'에 비견되는 개념으로, 현실에 존재하면서도 모든 장소의 바깥에 있는 공간, 일시적인 유토피아를 '헤테로토피아'라고 명명했다. 이분과 의자로 만든 임시 아지트, 다락방, 나만의 도서관 등이 바로 그것. (어린 시절 조약하게 만들었던 인디언 텐트에도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야 재밌는 법이다.) 교도소로 돌아가던 애나는 시계를 빌미로 훈과 만나 시애틀의 폐허가공원으로 함께 향한다. 이들은 서로의 아픔과 삶의 노정을 바치지 않은 채 일종의 헤테로토피아 속에서 시간을 함께 보낸다.



지하철 플랫폼에서 훈과 애나가 대화하는 장면. 두 사람은 언어적 한계를 초월해 마음으로 소통한다.

들은 점차 서로에게 끌리지만, 온전히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는 없었다. 훈이 "지금 몇시죠"라고 묻자 애나가 뜬금 없이 "나랑 잘래요?"라고 답하며 모델로 향하던 모습도 여운으로 남는다. 이런 장면들은 영화가 오래 삽입하는 베드신을 위한 장치라기보다, 엇갈린 감정선을 보여주는 일종의 '필수적 장면'으로 다가온다. 이들은 육체적인 결합 없이 헤어졌고, 도망자들의 세계에 안온한 '낙원' 따위는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다.

시애틀 투어는 계속된다. 애나에게 남은 시간이 3일로 한정되어 있기에 훈과의 감정선에 몰입하기가 어려웠지만 얼마 후 이 같은 고민은 기우였음이 드러난다. 지나가던 낯선 연인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는 훈은 그들의 입모양에 자신의 감정을 투영해 마음대로 내레이션을 입힌다.

"난 항상 그런 눈으로 당신을 봐왔어요/ 난 당신의 사랑을 원해요" 어쩌면 훈의 목소리일지도 모르는 이 유치한 각본에, 애나는 진심을 담아 내레이션을 따라한다. 그러나 그들이 목소리를 입혔던 외국인 연인들은 얼마 후 자리를 떠나버린다. 상황극은 돌연 마무리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환기된다.

폐상가에서, 쓸쓸느러운 지하철 플랫폼 아래에서 나누는 대화는 짝막하고 투박하지만 깊이가 있다.

중국 출신 애나와 한국인 훈의 대화는 새로운 위로의 방식을 보여주는데, 중국말이 어색한 탓에 훈은 애나의 말에 짝막한 중국어 '화이(안 좋네요)', '하오(좋네요)'로만 대답했다. 이를 해석하는 데 번역기 같은 것도 필요 없었다. 사람이 소통하는 데 언어란 수단일 뿐,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보

여주는 대목이다. 비슷한 분위기를 가진 영화로 하정우, 전도연 주연 '멋진 하루(2008)' 정도가 떠올랐다.

엔딩 크레딧이 오를 때, 생각했다. 분명 해피 엔딩은 아니다.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하는 '해비(Heavy) 엔딩'이다. 애나는 자기파괴적 연인의 대명사로 많이 알려진 '보니와 클라이드'처럼 끝내 교도소를 탈옥해 파멸적 죽음으로 치달음으로써 사랑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다만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을 이야기할 뿐. 무겁게 있는 마무리는 심적 공간을 채워주는 듯해 오랜 여운으로 남았다.

탕웨이의 근작 '헤어질 결심'의 마무리도 겹쳐 보였다. '만추: 리마스터링'은 현재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시리즈온 등 OTT 서비스에서 감상할 수 있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암전 속 불빛들...희망을 '잇다'

양나희 기획전...3월 27일까지 광주여성가족재단 전시실

골판지를 플라주한 판자집이 켜켜이 펼쳐져 있고 그 위로 불박이별이 박혀 있는 마을. 화폭 속 세상은 온통 어둠뿐이다. 인간들의 세상을 밝히는 것은 고작 앞전구가 전부, 그림에도 작품에서는 어딘가 온기가 느껴진다. 암전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잃지 않는 작은 불빛들은 희망을 위시하는 것 같다.

양나희 작가의 작품 '별의 시'를 보고 있으면 시대적 절망을 감내해 온 인간들의 희망, 고통을 동시에 떠올리게 된다.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재단) 여성 전시관 HERSTORY 기획전시실에서 3월 27일까지 열리고 있는 '잇다'전은 재단이 2018년부터 진행해 온 허스토리 기획전시 공모 수상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제6회 공모에서 당선된 양나희 작가는 2020년 광주미술상, 2019년 광주미술상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2018년 호반문화재단 청년작가공모전에 선정됐다. 이 밖에도 전라남도미술대전 대상, 대한민국 미술대전 구상 부문 우수상 등을 받았다.

전시장에서는 골판지 위에 유채로 달, 별, 성운 등을 수놓은 '사이닝' 연작부터 '집으로 가는 길', '방직공장 시리즈' 등을 볼 수 있다. 종이로 만든 담쟁이덩굴을 벽에 설치한 '담쟁이: 벽 앞에서 절망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잇다: 나-너-우리' 등도 제목에서 직관적으로 작품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양 작가는 "가치와 쓸모를 상실한 골판지 상자 등을 모아,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다"며 "가까이서 보면 골판지와 유화의 질감을 오롯이 느낄 수 있



양나희 작 '사이닝'

다. 화려한 기교는 아니더라도 잔잔한 감동과 울림을 주는 작품으로 비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 가능.

/글·사진·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풀과 잡초' 김제민 작가를 만나다

광주비엔날레 GB작가스튜디오, 31일 작업실 탐방

작가마다 자신을 투영하는 대상은 다르다. 어떤 이는 사물에, 어떤 이는 자연에 자신을 비추 본다. 자연도 나무의 수도, 식물의 수도, 바다와 풍경일 수도 있다.

전남대 교수로 재직 중인 김제민 작가는 자아의 정체성을 식물이라는 소재에 투영한다. 특히 풀이나 잡초 등을 모티브로 자신의 내면과 지향하는 세계 등을 표현한다.

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가 진행하는 GB작가스튜디오 탐방 올해 첫 시간으로 김제민 작가를 만난다. 31일 오후 2시 동구 계림동 김제민 작가 작업실.

박양우 대표는 "GB작가스튜디오 탐방은 작가와 참여자가 직접 만나 작품을 모티브로 예술과 창작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며 "이번에는 풀, 잡초 등 이미지를 매개로 자신을 표현해온 김제민 작가를 만나 그가 생각하는 예술, 작품세계 등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비엔날레는 작가 연구 담론을 확장하기 위해 김노암 미술평론가이자 전시 기획자를 김 작가와 매칭했다. 김 평론가는 아트스페이스 휴 대표를 맡고 있으며 문화예술 284 예술감독을 역임했다.

김제민 작가는 서울대 서양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전공했다. 지금까지 다수의 개



'청양당침'

인전을 비롯해 'ACT 페스티벌', '광주국제판 화교류전' 등 단체전에 참여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박스근미술관, 양평군립미술관 등에서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인터뷰 영상은 2월 중 광주비엔날레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러브앤프리, 첫 시집을 읽는 시간... 2월7일까지 매주 수요일

양림동에 있는 독립서점 러브앤프리(대표 윤셋별)에서 시인들의 첫 시집을 읽는 시간을 마련했다. 오는 2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진행은 지난 2023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근희 문학평론가가 맡았다.

누구에게나 첫 시집은 남다른 의미를 지니기 마련이다. 특히 첫 시집은 향후 시인이 펼쳐나갈 '시

의 집' 기초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득을 끈다.

오는 24일에는 최승자 시인의 '이 시대의 사랑'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어 예정이다. 사랑의 내력 등을 모티브로 한 작품은 오늘에 이르는 시인의 지적 궤적을 가늠할 수 있다. 앞서 러브앤프리는 17일 한여진 시인의 '두부를 구우면 아침이 온다'를 참가자들과 함께 읽은 바 있다.

오는 31일에는 임유영 시인의 '올렛'을 읽는다. "한데 섞인 흰자와 노른자의 중립적인 맛"이라는 '올렛'의 첫 문장이 표제작품이 됐다.

오는 2월 7일에는 한강의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를 만난다. 한국인 최초 맨부커상 수상작가 한강의 첫 번째 시집으로 뜨겁고도 차가운 언어들이 인상적이다. 소설 속 고통받는 인물들의 혼잣말인 듯한 비명들은 오랜 울림을 환기한다.

참가비 없음. 자세한 내용은 러브앤프리 문의.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